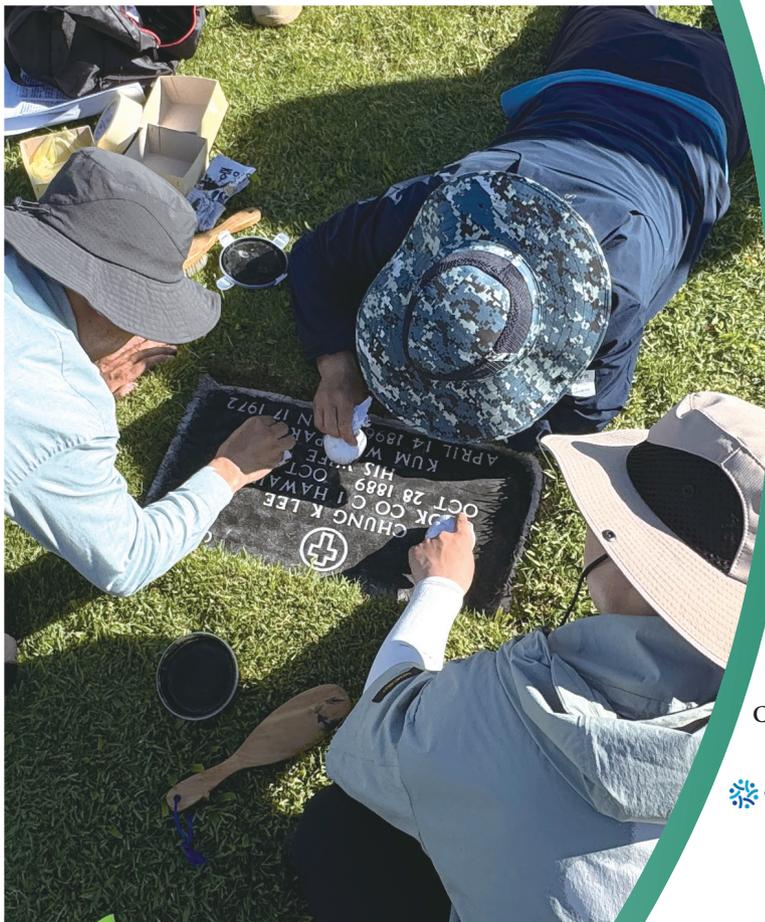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성인대학 사람들

CWNU PEOPLE



기록되지 못한 역사를  
기억해야 할 이름으로



2025 SUMMER  
CWNU Magazine  
vol. 02

### 알로하! 기억되어야 할 이름들

이름 없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120년 전, 조국을 떠나야 했던 하와이 이민 1세대. 묘비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증인입니다. '대한', '조선인', '광무'— 한글 고어체로 새겨진 단어들은 조국을 잊지 않은 마음의 증거입니다. 뜨거운 사탕수수밭에서 하루 10시간 일하고 받은 월급 17달러. 그중 1~2달러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보낸 사람들. 우리는, 너무 오래 그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2019년, 국립창원대학교가 그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잊힌 이름들을 찾아 하와이로 간 6년. 1600기의 묘비를 확인했고, 올해에도 11인의 독립유공자를 새롭게 찾아냈습니다. “내 나이 일흔에 남은 희망은 조선 독립뿐이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전 재산 70달러를 독립자금으로 낸 이만정 독립지사의 절절한 고백. ‘사진신부’라고 불리며 한인 남성과 결혼해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대한부인구제회를 조직해 독립운동에 참여한 창원 출신 김공도, 박금우 지사. 아직도 우리가 찾을 이름들이 많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역사에서 기억되는 이름으로. 잊힌 이들을 다시 꺼내 부르는 이 일, 또 하나의 독립운동입니다. 지역의 중심대학 국립창원대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Editor's Letter/* 120년 전, 낯선 이국땅에서 잊혀진 이름들.  
국립창원대학교는 그들의 이름을 역사에 되새기고 싶습니다.



# Contents

Korea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국립대학육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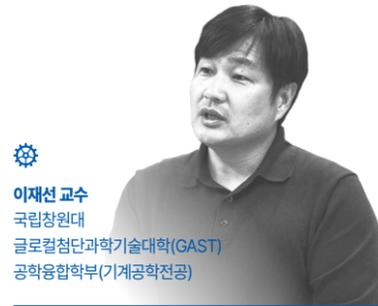
**발행인**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박민원  
**편집장**  
국립창원대학교 대학홍보원장  
**발행처**  
국립창원대학교  
(5114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Tel. 055-213-2603

<b>Chapter 01. 사람&amp;인터뷰</b>	<b>국립창원대를 빛낸 인물</b> 이재선 기계공학부 교수	<b>06</b>
	<b>국립창원대를 빛낸 인물</b> 국립창원대학교 여자 양궁부	<b>10</b>
	<b>미래로 달린다</b> 장영생 글로벌첨단기술대학 신입교수	<b>14</b>
	<b>미래로 달린다</b> 김무현 국제무역학과 학생	<b>18</b>
	<b>숨은 히어로</b> 손진혁 학생상담센터 팀장	<b>22</b>
	<b>자랑스러운 국립창원대인</b> 배정현 LG전자 SAC사업부 사업부장	<b>26</b>
<b>지역과 함께 CWNU</b>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b>30</b>	
<b>쉬어가는 코너</b>	<b>포토에세이, 지금CWNU</b>	<b>36</b>
<b>Chapter 02. 이슈&amp;스토리</b>	<b>국립창원대 DNA</b> 통합 국립창원대학교,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다.	<b>38</b>
	<b>국립창원대 한바퀴</b> 400년 마을의 시간, 국립창원대학교로 흐르다.	<b>42</b>
	<b>감성 사진관</b> 추억 속 그때 그 시절	<b>44</b>
<b>Chapter 03. 소식&amp;뉴스</b>	<b>키워드로 보는 통합국립대</b>	<b>46</b>
	<b>CWNU 뉴스</b>	<b>48</b>

국립창원대 공과대학 건물 한편. '비파괴 진단과 구조 모니터링 연구실' — NDE & SHM 실험실은 철제 프레임에 매달린 센서, 구형 측정기기 그리고 흐릿한 깜빡임을 띤 컴퓨터 화면들로 마치 오래된 전파상을 연상케 했다. 질서보다는 가능성, 정돈보다는 활기로 가득 찬 곳. 무언가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조용히 '알아내는' 공간, 그 안에서 푸근한 미소를 가진 이재선 교수를 만났다. write. 김보배 photo. 백동민



# 조용히 세상을 진단하는 Never Die Technique!! 이재선 교수의 실험실



**이재선 교수**  
국립창원대  
글로벌첨단과학기술대학(GAST)  
공학융합학부(기계공학전공)

**고장 나기 전에 알려주는 과학**

이재선 교수의 연구 분야는 비파괴 진단(NDT). 쉽게 말하면,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기계나 구조물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여기, 곧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기술이다. 마치 병원에서 초음파나 엑스레이로 몸속을 진단하듯, 이 기술은 기계의 소리, 파형, 미세한 반응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감지한다. “예를 들어 원자로 배관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면, 방사능 오염수가 새어 나올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런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더 큰 사고를 막는 일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철도, 방위산업, 우주 항공 등 사고가 생기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고위험 분야에서, 이 기술은 사람들의 일상을 조용히 지켜내고 있다.

**과학, 일상에 닿다**

이 교수의 연구는 철저히 현장 중심이다. 이론보다 ‘실제 어딘가에

쓰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기술의 실용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공학자니까, 현장을 생각해야죠. 기술이 연구실에서 끝나선 안 돼요.” 현재 이 실험실에는 석·박사 과정 연구원 14명이 함께하고 있다. 학생들은 각자 주제를 정해 연구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곧바로 실험으로 옮긴다. “학생이 ‘이거,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라고 하면 저는 ‘해보자!’ 하고 같이 실험을 시작합니다. 작은 질문이 큰 연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연구실은 LG전자 등과 협업하며 냉매 시스템 진단 기술의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나가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연구실에서 세계로**

이재선 교수의 연구는 최근 국제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그의 팀이 초음파 반사 신호를 증폭해 결함을 감지하는 ‘메타구

조 기반 메타필터 모델’을 개발해 국제 저명 학술지《Mechanical Systems and Signal Processing》에 등재된 것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이 교수는 캐나다 학회(2025년 7월)에 초청돼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다. 그는 연구 성과만큼이나 학생들에게 ‘세상 밖을 보는 기회’를 주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우리나라에선 스펙, 학벌, 간판이 먼저지만 해외 학술대회에 나가면 실력이 먼저예요. 발표하고, 질문 받고, 인정받는 경험이 학생들에게 정말 큰 자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NDE & SHM 실험실의 학생들은 매년 국제 학술대회를 경험한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영어 발표에 주눅 들기도 하지만, 질문을 받고, 토론을 벌이며 자신들의 실력이 통한다는 걸 체감하게 된다. 그 경험은 연구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스스로를 다르게 보게 만든다. “전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이에요.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려면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거든요.” 실제로 이 교수의 연구팀 제자들은 국내외에서 다수의 연구 성과 발표와 수상 실적을 올리며 기술력과 가능성을 입증해 왔다. 이러한 성과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실용 공학 연구가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Never Die Technique, 사라지지 않는 기술**

이재선 교수는 다수의 학술대회를 경험하면서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고 한다. “이 비파괴 진단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매우 중요한 안전 기술로 대우받아요. 현장에서 진단하는 엔지니어도 전문가로 존중받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현장 기술자’ 정도로만 여기는 시선이 있어요.” 그의 말에는 연구자로서의 아쉬움과 사명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우리는 반도체처럼 주목받지는 않아요. 사고가 나야 관심을 받는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 교수는 비파괴 진단의 약자 NDT를 ‘Non-Destructive Testing’ 대신 “Never Die Technique”이라 부른다. 이 기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그저 문제없는 일상이 계속되도록 뒷받침하는 힘. 그게 이재선 교수의 연구다.





# Women's

## “우린 웃으며 쏘는 팀입니다” 따뜻한 팀워크와 집중력, 국립창원대 여자 양궁부의 힘 ✨

국립창원대학교 여자 양궁부

태양과 가장 가까운 캠퍼스 끝자락, 활시위가 팽팽히 당겨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국립창원대학교 여자 양궁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두 차례나 단체전 메달을 획득하며 견고한 실력을 증명했다. 이 작은 대학 팀이 어떻게 이렇게 강할까? 그 해답은 기록보다 ‘사람’에 있었다.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팀워크로 더 멀리, 더 단단하게 나아가는 국립창원대 여자 양궁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write.** 김보배 **photo.** 백동민

- 2025년 5월 제59회 전국양궁종별선수권대회 - 단체전 3위
- 2025년 6월 제43회 대통령기 전국양궁대회 - 단체전 동메달, 개인 30m 은메달(정다예나)

Archery

제59회 전국남여 양궁 종별선수권 대회 단체전 3위



“우린 눈빛만 봐도 알아요”

국립창원대 여자 양궁부가 단체전에 강한 이유

정다예나·최지원(4학년), 이예진(3학년), 이다영(1학년). 학년도 다르고 성격도 제각각이지만, 훈련장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린다. “사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경기장 위에서 절실한 신뢰의 언어다. 누가 긴장했는지, 타이밍이 흔들리는지, 손끝이 묵직하지—매일 함께 쌓아온 감각은 단체전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를 감지하고,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주장 정다예나 선수는 이번 대통령기에서 개인전 은메달도 획득했지만, 이렇게 말한다. “전 단체전이 더 좋아요. 내가 실수해도 팀원들이 메꿔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양궁은 정적의 스포츠지만, 단체전은 다르다. ‘한 발’의 실수가 곧 전체 흐름을 흔든다. 그럴수록 팀원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흐름을 되살리고, 더 단단한 팀워크로 응전한다. 단순히 ‘잘 쏘자’가 아니라, ‘같이 쏜다’는 감각이 국립창원대 양궁부의 저력이다.

흔들리는 순간, 이들이 붙잡는 마음

물론 이들에게 양궁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다. 과녁을 보고, 활을 당기고, 쏘는 단순한 동작 속에서 선수들은 매 순간 복잡한 심리전과 고뇌를 겪는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활이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똑같이 쐈는데, 어떻게 해도 과녁에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반복돼요.” 슬럼프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어느 날 문득 활이 낯설고, 점수가 흔들리고, 자신감도 줄어든다. 그럴 때마다 선수들은 자신만의 루틴과 마인드 컨트롤로 다시 균형을 찾아간다.

정다예나 “10점이 아니어도 괜찮아. 9점이면 좋아.(그렇게 생각하면 10점을 싸요)”

이다영 “활을 내리면 흐름이 깨져요. 전 절대 내리지 않아요.”

이예진 “경기장에선 어떤 것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해요”

최지원 “1번, 4번 화살은 안 써요.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 짧은 말들엔 하루하루 자신과 싸우며 견뎌온 시간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들은 무너지는 순간을 견디고 다시 일어난다. 마치 매일 아침 활을 드는 것처럼, 그들은 마음도 다시 당긴다.



광주여자대학교 총장기 제26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여자부 단체전 2위

선수들을 일으키는 ‘진성 매직’

이런 시간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다시 일으켜 주는 사람이 있다. 국립창원대 양궁부를 이끄는 김진성 감독이다. 그는 큰소리보다, 기다림과 신뢰로 팀을 끌어올린다. “저는 아이들이 물음표로 물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코치님, 오늘 훈련 그만해도 돼요?’ 물어보면 무조건 더 하라고 해요. 그런데 ‘코치님, 오늘 훈련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그러라고 합니다.” 선수들이 뭐든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방목형(?) 교육 철학 덕분에 이들의 연습장은 늘 웃음과 활기가 넘친다. 그렇다고 무작정 풀어놓는 건 아니다. 선수들이 흔들릴 때, 김진성 감독은 누구보다 빠르게 마음을 알아채고 다가간다. 이번 전국선수권대회 단체전 8강전. 상대는 강팀.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정다예나 선수는 중요한 순간, 0점을 기록했다. 자신의 실수로 경기가 흔들렸다고 느낀 정 선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김진성 감독이 다가갔다. “예나야, 참지 말고 차라리 욕을 해. 속에 안고 있지 말고, 다 털어버려.” 정다예나 선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울분을 담아 그대로 욕을 내뱉었다. 그리고 경기는 계속 됐고, 그날 국립창원대는 기적처럼 단체전 3위에 올랐다. 선수들은 그런 모습을 “진성 매직”이라 부른다.

“우리가 쏘는 화살이, 국립창원대를 대표해요”

국립창원대 양궁부 선수들은 자신들의 화살이 곧 학교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활을 당긴다. 이제 4학년 선수들은 졸업 앞둔 시점에서,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정다예나 “저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제가 국가대표가 되면,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활을 쏘게 될 수 있겠죠?”

현재 국립창원대 양궁장은 야외 컨테이너 구조로,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이 따로 없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비가 새고, 훈련 중 잠깐 앉아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휴식 공간도 없다.

선수들 “꼭 새 양궁장이 아니더라도, 건물에 화장실만 있어도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김진성 감독 “예산이 줄어서 올해 회식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애들한테 정말 미안하죠.”

소박한 바람이지만, 그 마음엔 간절함이 담겨 있다. 언젠가, 더 나은 훈련 환경에서 마음껏 활을 당기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날, 이 조용한 컨테이너 양궁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길 바란다. 국립창원대 양궁부는 오늘도 조용히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활을 든다.

“우리는 웃으며 쏘는 팀입니다.”

그 한마디에는 서로를 믿고, 다독이며, 함께 걸어나온 시간이 담겨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팀.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제 59회 전국남·여 양궁 종별선수권 대회 단체전 3위 여자대학부 장소 : 예천 진흥국제양궁장 2025. 4. 30 ~ 5. 2 대한양궁협회 회장 정의선

## 바이오 도시 창원을 꿈꾸며

글로벌첨단과학기술대학 GAST 이학융합학부  
장영생 교수

방위·기계산업 등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 온 창원시는 앞으로 바이오산업으로도 유명해지지 않을까? 글로벌첨단과학기술대학 이학융합학부의 새 얼굴 장영생 교수를 만나자 이런 확신이 들었다. 개인 연구부터 인재 양성, 지역 바이오산업 성장까지 모두 이끌고자 하는 그의 열정 넘치는 청사진을 들어보자. write. 화유미 photo. 백동민

### 장영생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국립창원대학교에 대한 첫인상을 들려주세요.

2024년 9월 임용된 글로벌첨단과학기술대학 이학융합학부 미생물학 담당 장영생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면역학 수업을 했었고, 올해부터 정식으로 강의를 맡아 의생명공학 파트와 응용 면역학 수업을 했어요. 국립창원대학교는 제 첫 교수 임용지이기도 하고, 경남에 처음 와서 초반에는 많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의 말투나 분위기로 인해 걱정을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츄데레(겉으로 차갑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사람)'라고 할까요. 정이 많아 잘 챙겨주셔서 굉장히 포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 올해 신설된 글로벌첨단과학기술대학과 소속 학부이신 이학융합학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글로벌첨단과학기술대학은 기계, 방위, 로봇, 자동차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학융합학부는 기초과학부와 첨단바이오학부 산하에 각기 나아갈 방향이 유사한 여섯 개의 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과학부 내에는 수리과학전공, 반도체물리학과전공, 에너지화학전공이 있고 첨단바이오학부는 생명과학전공, 미생물생명공학전공, 생명보건학전공을 포괄합니다. 저희 학부는 1학년 때는 무전공으로 여섯 가지 전공을 경험해 본 뒤 2학년이 되어 전공을 선택합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도 주전공과 부전공을 선택해 같이 이수하여 복수 전공으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요.

### 교수의 길을 걷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에는 공대에 갔었습니다. 공대가 성격에 맞을 줄 알았는데, 진학해 보니 적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군대에 다녀와 재수를 결심하며 생물 분야가 저에게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부를 할수록 흥미가 생겼고, 앞으로 바이오 산업의 전망이 밝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생명과학을 전공하게 됐죠. 처음엔 석사

# Bio City Changwon



를 마친 후 산업계에 뛰어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취업했고, 3년 정도 근무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연구 쪽에 매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 박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박사 과정을 밟으니 박사 후 과정에 또 욕심이 생기고, 몰입하는 게 정말 재밌어지더라고요. 연구를 통해 제품을 만드는 과정도 좋지만, 기초적으로 연구하고 원리를 밝히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껴 교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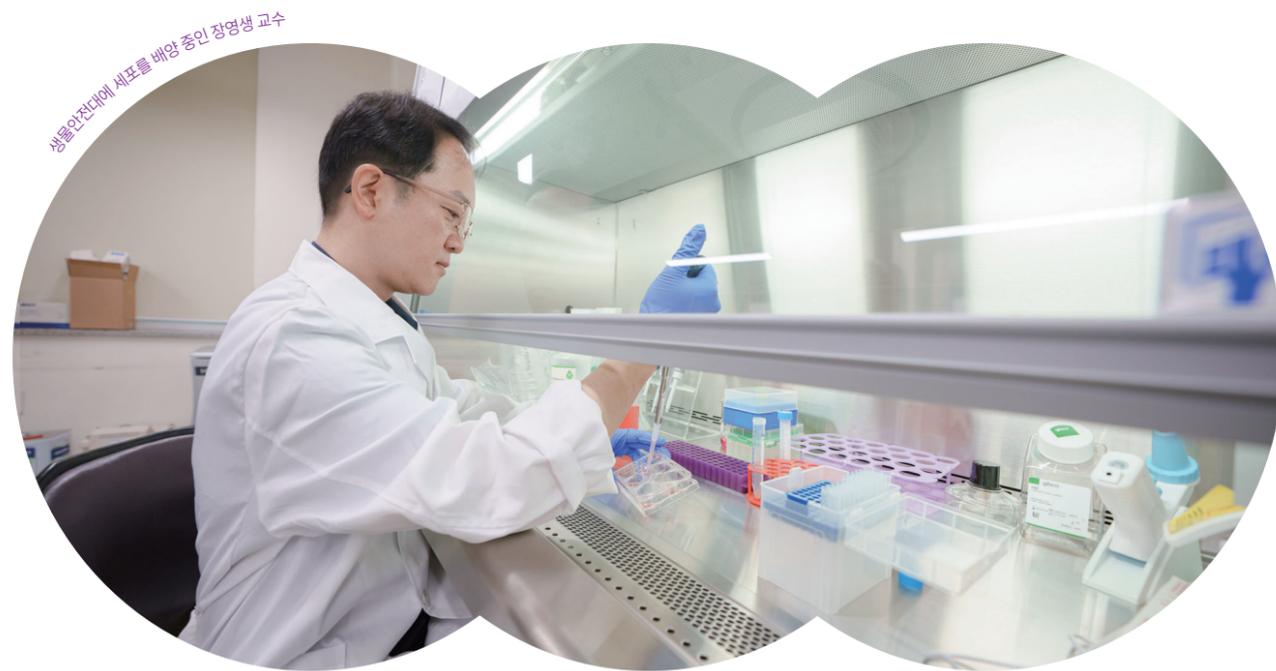
**지난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신임교원 아카데미'에 성실히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신임교원 아카데미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제도예요. 신임 교수들이 연구 능력을 키우고 지역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1호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무척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경남에 온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둘러보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더욱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MBC경남을 방문했던 경험이에요. 제가 창원에만 머물다

보니 '마창진'이라는 통합 창원시의 다른 지역구를 둘러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마창진'이 분리된 느낌도 받았고요. MBC경남과 마산을 돌아보면서 지역 감수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방송국을 둘러보며 '내 연구에서 큰 업적을 쌓게 되면 인터뷰도 해 보고 싶다'라는 연구 동기도 얻었습니다. 나아가 방송 패널로 한 번 참여해보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돼 정말 뜻깊었습니다.

**'신임교원 아카데미'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혹시 아쉬운 점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평소 창원에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대기업이 많다고 들었지만, 크게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아카데미를 통해 직접 창원 기업들을 탐방하면서 우리 학계와 산업계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방산, 중공업, 항공 분야 기업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죠. 반면, 아쉬웠던 점은 창원이 아직 바이오산업이 발전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공대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이 다른 산업 분야와 협력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생물안전대에 세포를 배양 중인 장영생 교수

**바이오산업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이며, 그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세포 배양 시료 처리된 중앙세포를 수확하는 모습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세포와 배양액을 분리한다

**교수님의 주요 연구 분야와 앞으로 국립창원대학교에서 펼쳐나갈 연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연구 분야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세포 면역학입니다. 우리 몸에서 외부의 물질에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면역 체계라고 하는데요. 세포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면역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 간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게 면역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신임교원 아카데미'를 통해 파악해 보니, 아직 창원의 바이오산업이 크게 발전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바이오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 세포 사멸과 동맥경화 치료제를 연구하고, 그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큰 청사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립창원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실 텐데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우리나라의 과학이 발전하려면 대학원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대학원을 활성화해 고급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이 있다면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현재 창원에는 의대나 한의대, 수의대, 약대 같은 바이오산업 관련 학과가 없어 이 분야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큰 병원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네 개 학과 중 하나라도 국립창원대학교에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예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첨단과학기술대학 이학융합학부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나 격려의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간 학생들을 만나면서 동기 부여가 다소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창원 지역의 바이오산업이 아직 발전하지 않아,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산업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이며, 그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향해 더욱 열정적으로 매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동기 부여를 돕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서관이라는 별자리 속 나만의 북극성을 찾다

2025 상반기 도서관 최우수 이용자  
김무현 국제무역학과 학생

*Kim Moo-hyun*

2025년 상반기, 국립창원대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책을 대출한 학생은 국제무역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무현 씨였다. 불과 한 학기, 세 달 남짓한 시간 동안 70여 권의 책을 빌린 그는 단순한 '다독가'가 아니라, 책 속에서 스스로의 방향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사유의 독서가였다. 문학에서 국제정치까지 폭넓은 분야의 책을 탐독하며 자신만의 북극성을 좇고 있는 김무현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write. 김달님 photo. 백동민



**Q** 안녕하세요, 김무현 학생. '2025 상반기 도서관 최우수 이용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 먼저 축하드립니다.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기쁘기도 했지만, 솔직히 당황스러움이 먼저었어요.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도서관을 본격적으로 이용한 건 올해 3월 말부터라서, 이런 상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더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Q** '상반기 대출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몇 권을 빌리셨는지,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인지 함께 소개해 주세요.

72권으로 기억합니다. 전공 관련 배경지식을 쌓기 위해 경제, 경영, 국제정치처럼 국제적인 단위를 다루는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의 결을 가진 문학 작품,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광란의 20년대'라

불리는 20세기 미국의 전성기를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사회와 인간의 욕망을 통찰하는 고전으로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Q** 앞서 수상 소감을 전하는 자리에서 "별자리처럼 수놓인 수많은 책들 속에서 저만의 북극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책을 별이라고 생각해요. 저마다의 매력을 지니고 있고, 사람들이 자주 찾든 그렇지 않든,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우리 도서관은 그런 몇 별들이 잠들어 있는, 하나의 별자리 같은 공간이에요. 과거 개척민들이 북극성을 이정표 삼아 여정을 이어갔듯, 지금 우리는 꿈과 삶이라는 여정을 개척해 나가고 있죠. 그 여정을 위한 북극성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도서관 속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Q** 올해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도서관을 찾았다고 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군대 전역 후, 여느 때처럼 과음을 했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실패가 두려워 시선을 회피하고, 노는 데만 몰두하는 건 제 인생에 대한 존중도 아니고, 저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에게 대한 일종의 배신이라는 것을요. 게다가 저는 J-pop 팬인데,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 팬을 보면 분명 슬퍼할 거라는 생각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지지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덕질을 위해 도서관에 가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Q** 그렇게 도서관을 찾기 시작하시면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오랜만에 펜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했거든

요. 그때 도서관에서 전공 서적을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점점 공부의 방향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도서관이 없었다면 복학 준비가 훨씬 더 어렵고 버거웠을 것 같아요.

**Q**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공간 자체에 대한 애정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자주 이용하는 분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자료동에 마련된 셀프 대출·반납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사람을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편하게 책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배려라고 느꼈습니다. 작은 부분처럼 보이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Q** 반대로, 도서관 이용 중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도서관의 규모가 작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중앙도서관 외에 이공계열 전용 도서관을 마련하는 등, 최소한 투 트랙 전략으로 운영해 소속 구성원들에게 더 넓은 학습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배움의 기반 시설입니다. 학교가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Q**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독서 자체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갈수록 독서량이 줄어드는 지금, 특히 청년들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이유로 '문해력'을 꼽고 싶어요. 독서를 하면 자연스럽게 문해력이 향상되고, 이는 가짜 뉴스나 불공정 계약이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게다가 금리나 환율, 전입신고 같은 필수적인 생활 정보는 정규 교육과정에 잘 담기지 않잖아요. 책은 그런 지식들을 검증된 정보로 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통로입니다.



**Q** 독서를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독서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장르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익숙한 영역부터 읽다 보면, 점차 관심사도 넓어지고 책과 친해질 수 있어요. 덧붙이자면, 한 장르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사고가 한 방향으로만 굳어지면 확증편향에 빠지기 쉬운데, 다양한 관점을 접하다 보면 생각의 유연성이 생기고, 사소한 의견 차이도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 책을 통해 의견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힘을 기르면, 사람들과의 소통도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과,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크리스 밀러 작가의 《칩 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반도체의 역사와 그에 얽힌 글로벌 패권 경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IT 기업에 투자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께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또래 청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은 시몬 비젠탈의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입니다. 용서와 화해, 정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인데, 읽고 나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통과하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한 번쯤 읽어보시고, 그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는 경험을 하셨으면 합니다.



# Student Advising Center

## 학생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국립창원대학교  
손진혁 학생상담센터 팀장

국립창원대학교 사립관 3층에 위치한 학생상담센터. 센터의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따뜻한 눈빛으로 반겨주는 이가 있다. 바로 손진혁 팀장이다. 2017년부터 심리상담사로 활동해 온 그는 2023년부터 창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고민과 마주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의 풍부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일상과 마음을 살피는 그는 오늘도 학생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write. 김봉임 photo. 백동민



### Profile

MBTI	ESTJ
별명	손팽수(팽수를 닮은 외모와 애정에서 비롯됨)
가장 많이 하는 말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말	그럴 수 있지
듣기 싫은 말	극혐(모든 정서표현을 축약해서 표현해버리는 말)

**심리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담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

살아가면서 유독 기억에 남는 이들이 있다. 화려한 말솜씨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만큼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건 쉽지 않다. 심지어 고민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라면 더 그럴 터. 손진혁 팀장은 어떤 계기로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걸까?

“제가 고등학교 때 위클래스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로 검사 해석을 들으면서 심리상담사가 매력적인 직업으로 느껴졌어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평범한 직장인의 삶도 생각해 봤지만 그때 결심하지 않으면 못 할 것 같아서 바로 대학원에 진학해 수련을 받았습시다.”

올해로 7년째 사람들의 심리를 상담하고 있는 손진혁 팀장. 사람의 인생을 한 권의 책에 비유한다. 누구나 저마다 자신만의 특별한 인생 책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생 책이 꼬이거나 영키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 책장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 눈에 보이는 특별한 성과가 없어도 괜찮다. 그저,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 싶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담자를 위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다면 상담의 어떤 기술도 의미가 없어요. 진심 없는 상담은 내담자에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내담자는 누구보다 진짜와 가짜를 금방 알아챈다. 상담자가 진심으로 내 고민을 들어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들어주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있다. 진정한 경청은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그렇기에 손진혁 팀장은 내담자를 위한 마음을 상담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상담 이론과 기법은 경험이 쌓이면 어느정도 늘겠지만



내담자를 위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경력이 쌓일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더 쉬우니까 초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인인 듯 성인 같은  
성인 아닌 대학생들**

손진혁 팀장은 자칭타칭 펍수를 닮았다. 동글동글한 외모와 느긋한 말투가 상담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다. 왠지 고민을 털어놓아도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담자들에게 편안한 인상을 준다는 건 심리상담사에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하하하) 펍수를 닮아서 그런지 상담받는 분들이 저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건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세심한 공감에 대해 조금 약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상담센터를 찾는 학생들의 고민은 다양하다. 학년이나 전공, 성격에 따라 그 고민이 모두 제각각이다. 특히, 대인관계가 어렵다는 고민이 많다. 대학생들은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발달 이론상으로는 아직 후기청소년기에 속한다. 청소년과 어른의 경계에 선 대학생들. ‘나’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또 어떤 애티튜드를 갖춰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하곤 한다.

**누구든지 편하게 차 한잔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학생상담센터는 꼭 심리적으로 힘들 때만 방문하는 곳이 아니다. 가벼운 일상을 공유하길 원하는 사람도 찾는다. 누구든지 편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손진혁 팀장이 바라는 학생상담센터의 모습이다.

“학생상담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차 한잔 마시러 오셔도 좋아요. 자신에 대한 이해, 관계에 대한 고민, 진로의 정리 등 크고 작은 모든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학생상담센터에서는 1년 내내 개인 상담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여름방학과 2학기에는 ‘불안’, ‘대인관계’ 등 다양한 주제의 집단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원생도 참여할 수 있다. 자살 예방 교육, 또래 상담자 양성, 무전공 입학생 대상 심리검사(MCI) 워크숍도 새롭게 운영된다.

“저희 프로그램은 모두 자기 이해와 통찰을 돕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분노라는 감정도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하죠. 이런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내담자에게 가로수 같은  
상담자가 되고 싶어요**

올해로 심리상담사 7년 차 손진혁 팀장. 앞으로 어떤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냐는 물음에 ‘가로수 같은 상담자가 되고 싶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 의미가 인상 깊다.

“내담자가 어느 방향에서 오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햇볕이 뜨거울 땐 그늘이 되고, 바람이 불 땐 방패막이 되어주고, 다시 돌아올 때도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존재 말이지요.”

손진혁 팀장이 이루고 싶은 꿈은 두 가지다. 첫째는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 더 좋은 상담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립창원대학교 학

생상담센터를 단단한 체계 속에서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미 COSS라는 시스템이 유례없이 잘 갖춰져 있지만, 여기에 객원상담사, 인턴상담사들을 통해 더 체계적인 인력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후배 상담사들을 슈퍼비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제 꿈이에요.”

국립창원대학교 사립관 3층 학생상담센터에서 오늘도 조용히, 가로수처럼 학생들의 삶에 작은 심포를 건네고 있는 손진혁 팀장.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무엇이나는 물음에 이렇게 말한다.

**“내담자가 더 이상 상담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줄 때 가장 뿌듯해요.  
상담실은 단지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출발선이기 때문이에요.”**



# LG HVAC LEADERS SUMMIT 2025



## 모교의 캠퍼스에서 움튼 꿈이 기업으로, 지역으로, 세계로

배정현 LG전자 SAC사업부 사업부장

LG전자 SAC사업부 배정현 사업부장은 오랜만에 모교인 국립창원대학교 캠퍼스를 찾았다. 89학번 기계공학과 신입생이었던 그는, 자신이 공부했던 기계공학과 건물, 영자신문 취재를 하며 밤새웠던 동아리실을 익숙하고 친근하게 바라봤다. 과거보다 더 높아진 위상과 규모가 느껴져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그가 국립창원대학교를 찾은 건 단순한 동문 방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LG전자와 국립창원대학교의 산학 협력을 위한 논의를 위해서였다.

write. 김수미 photo. 홍순천

### 동료의 작은 가능성을 존중하며 응원하는 리더십

배정현 사업부장은 국립창원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5년 LG전자에 입사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에 IMF 외환위기가 닥쳤다. 침체된 국내 경기 속에서 환율은 급등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LG전자는 수출에 힘썼다. 배정현 사업부장은 밤을 새우며 신제품을 개발했다. 일본의 경쟁사를 이기고 우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엔지니어의 자부심을 강하게 느낀 때이기도 했다. 그는 수련하듯이 자신의 일에 매진했다. 처음에는 동기들과 비슷한 성장 속도였지만, 5년, 10년이 흐르면서 꾸준함은 엄청난 차이를 낳았다. 그렇게 배정

현 사업부장은 한 직장에서 31년 동안 일하면서 엔지니어에서 사업부장의 이름을 달았다. 그의 리더십에는 철학이 있다.

“저는 구성원의 작은 가능성을 크게 봅니다. 구성원에게 충분한 권한과 선입견 없는 기회를 부여해요. 잦은 소통과 교육을 통해 실패를 하더라도 스스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이런 경험의 축적으로 구성원이 앞으로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하고 창의성도 키울 수 있죠.”

**지역을 살리고,  
대학과 산업을 잇는 전략적 산학협력**

지역 청년 유출 문제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사회 문제로 지목받는 요즘이다. 작년 국립창원대학교는 글로벌 대학에 선정됐다. 국립창원대학교는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이념과 최고의 지역 산업 기반형 연구 중심 대학 모델이 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배정현 사업부장은 이러한 국립창원대의 방향성에 깊이 공감했다.

“창원에는 LG전자 ES사업본부의 R&D와 첨단 제조 시설이 있죠.

제가 담당하는 SAC사업부는 5년 내에 두 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내부 자원과 역량, 설비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이번 산학 협력을 통해 창원을 중심으로 한

HVAC(냉난방공조) 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협력업체 및 동남권 우수 대학들의공동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히트 펌프 및 데이터센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강한 기업의 기반,**

**인재 육성**

SAC사업부는 상업용 공조기기의 개발과 설치,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조직이다. 특히 히트 펌프,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은 향후 산학 협력의 핵심 분야다. 갈수록 기술 지원과 인재 육성 확대가 중요한 일로 떠오르고 있다. 배정현 사업부장은 더불어 협력사의 경쟁력이 모회사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브랜드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협력사들도 이미 글로벌 수준의 규모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66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협력사까지 인재 육성을 확대하는 계획은 당연한 일이죠. 앞으로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된 국립창원대학교와 가칭

‘LG HVAC R&D센터’를 구축하고 동남권 우수 대학 및 제조 협력업체와 첨단 연구설비를 공동 사용하며 협업할 계획입니다. 이때 육성된 국립창원대학교 학생들이 LG전자를 포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성과와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하며,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앞으로 해야 할 연구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를 주요 연구 과제로 두고 산학 협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국립창원대학교에선 LG전자에서 제공되는 시험 설비와 과제 수행을 통하여 제품에 적용된 최신 기술 트렌드를 빠르게 습득할 거라 기대해요. 타 대학들의 일반적인 실험실 수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LG전자 또한 산학 과제 수행을 통하여 R&D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개발 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 또한 양질의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이죠.”

**국립창원대학교와 LG전자 SAC사업부가  
함께 이뤄갈 꿈**

탈탄소화에 따른 히트 펌프 보급의 확대, AI 기술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배정현 사업부장은 히트 펌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극한지, 혹서지에서도 안정적인

배정현 사업부장은 이번 산학 협력을 통해 국립창원대가 글로벌 HVAC의 핵심 연구 대학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꿈은 이렇게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다.

#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1902년 12월, 인천을 출발한 객력호는 121명의 조선인을 태우고 하와이로 향했다. 한국 근대 이민 역사의 시작이었다. 이후 1905년까지 약 7,400명이 하와이로 떠났고, 그들 대부분은 사탕수수 농장에 배치되었다. 10시간 노동, 17달러 월급. 낮에는 뜨거운 사탕수수밭에서, 밤에는 열기로 꼭 찬 농막에서 생활했다. 그들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었다. 조국에서 살 수 없어 조국을 떠났지만, 독립운동의 숨은 주역이 되었다. 저 멀리 타국 하와이에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만들고 한인 정신을 이어갔다. 120년 전,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 이민 1세대.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에 걸쳐 국립창원대학교 박물관은 하와이 현지를 누비며 하와이 이민자 묘소 조사를 벌여, 현재까지 총 1,600기를 확인했다. 특히, 2025년 올해에만 총 11인의 독립유공자 묘소를 새롭게 밝혀냈다.

write. 김봉임 photo. 국립창원대 박물관 제공



하와이 한인 기념비를 탁본하고 있는 박민원 총장

**“철심 평생 남은 희망은 조선 독립뿐이오”**

**독립운동가 이만정 선생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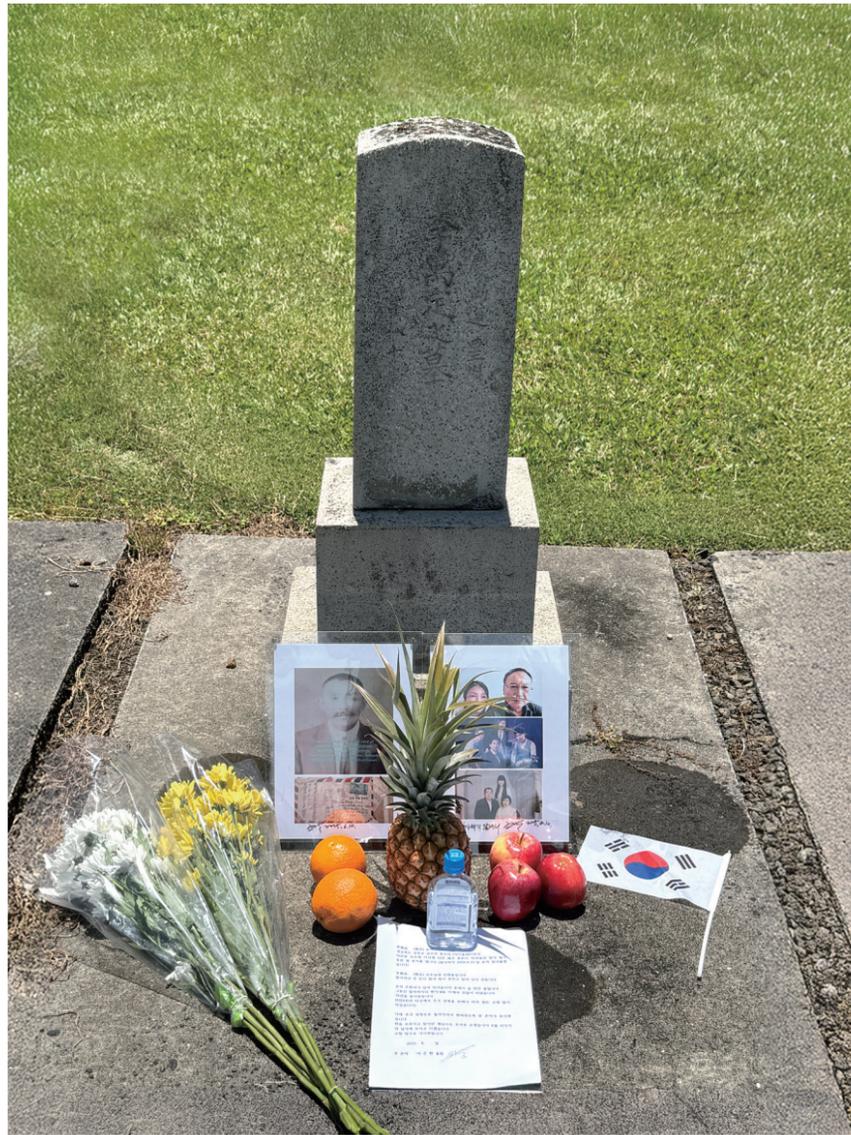
고 이만정 선생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1905년 하와이로 이주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모은 70여 달러 전 액을 독립자금으로 낸 역사적 인물이다. 평균 월급 17달러 시대, 전 재산 70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애를 건 선택이었다. 1942년, 당시 하와이 한인 신문 《국민보》 지면에는 그가 70달러를 기탁하며 남긴 말이 실렸다.

“내가 일흔에 남은 희망은 조선 독립뿐이오.”

그의 한마디는 하와이 이민 1세대의 민족애와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 이민자들은 머나먼 타국에서도 기부금을 모아 임시정부를 후원하며 독립운동에 힘을 보탤다. 장인 환과 전명운 의사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가 하와이 이민 1세대가 모금한 의연금을 받았다. 회원들이 각각 납부한 의연금은 평균 1~2달러 정도였다. 하와이 이민 1세대들은 1940년대까지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모금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혈성금, 애국금 등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며 광복 때까지 독립운동을 위한 지원을 이어갔다. 백범 김구가 《백범일지》에 ‘하와이 이민자들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다’고 기록했을 정도다. 머나먼 하와이에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살아간 하와이 이민 1세대의 이름들이 국립창원대 박물관 하와이 조사단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묘비를 받는 순간,  
할아버지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이만정 선생의 증손자 이은환 씨(70)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 이 씨는 생전에 증조부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편지 몇 장과 묘소 전경이 담긴 오래된 사진을 간직해 왔다. 그러던 중 국립창원대 박물관이 하와이 한인 1세대 이민자들의 기록을 조사 중이라는 소



이만정님 묘소에 올린 술 한잔

\*  
묘비를 받는 순간,  
마치 할아버지의 손길이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후손으로서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던 것 같아  
미안함과 감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식을 듣고, 그동안 보관해 온 편지와 사진을 박물관에 전달했다. 조사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묘소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하와이 빅아일랜드 코나 커피농장 묘지에서 이만정 선생의 묘소를 찾아냈다. 2025년 6월 10일, 이만정 선생의 묘소 탁본을 뜬 뒤 7월 3일 손자 이은환 씨에게 전달했다.

“묘비를 받는 순간, 마치 할아버지의 손길이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후손으로서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던 것 같아 미안함과 감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손자 이은환 씨는 43점의 귀중한 사료를 국립창원대 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만정 선생과 동지들이 주고받은 자필 편지, 묘소 사진, 기부 영수증 등이다. 이는 하와이 한인 디아스포라의 생활상은 물론 교민 사회의 자치 활동

창원 출신 여성독립운동가 박금우 지사 묘비 탁본하는 박민원 총장과 조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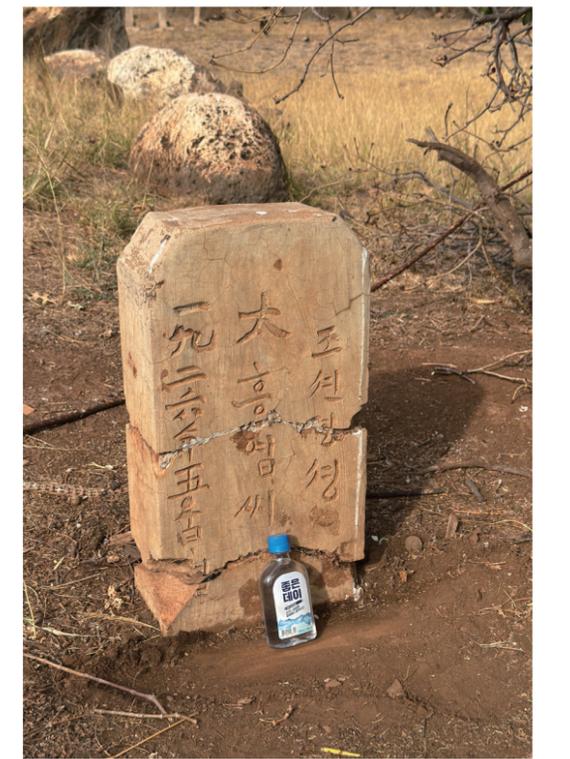


과 독립운동 기부 문화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로 평가된다.

**이 순간을 평생 기다렸습니다.  
100년 만에 찾은 윤계상의 묘**

이만정 선생의 사례에 이어 국립창원대는 또 한 명의 묘비를 찾아냈다. 1905년 시베리아호를 타고 홀로 하와이로 이주한 윤계상 선생이 그 주인공이다. 윤계상 선생은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부 총부회장을 지내고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불령선인(불순한 사상을 가진 조선인)’으로 지목될 만큼 활동적이었다. 창원대 박물관은 하와이 입항 선박부를 분석해 윤원식 선생이 1905년 5월 8일, 38세의 나이에 가족을 두고 홀로 시베리아호를 타고 하와이로 이주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족보를 토대로 윤원식의 자(字)가 계상임을 확인하고 고향과 사망 일자, 당

일본인 묘지 한 칸에 홀로 남겨진 태형업님 묘비에 부어드린 술 한잔





미주한인재단 하와이와 협약식

시의 신문 기록 등을 교차 검토하여 하와이 빅아일랜드 커피농장 묘지에서 1922년 사망한 윤계상이 윤원식과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윤원식 선생 별세 101년 만에 묘지를 찾아낸 것이다. 국립창원대학교 박물관에서 하와이 현지 이민 1세대의 묘지를 조사, 복원하는 과정에서 고인과 유족이 연결된 최초의 사례다. 2023년 조사단이 묘소를 확인했고, 2025년 손자 윤동균 씨는 마침내 조부의 묘 앞에 설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사진 한 장에 의지해 하와이로 이주한 '사진 신부'였으며, 대한애국부인회, 영남부인실업동맹회, 대한부인구제회 등에서 함께 활동하며 조국 독립의 최전선에 섰다. 고향의 국립대학이 이들의 삶의 흔적을 직접 발굴했다는 사실은 잊혔던 여성 독립운동을 복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의 책무를 다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가장 빛나는 성과,  
하와이에서 경남의 딸을 찾다.**

2025년 6월 4일부터 29일까지 벌인 올해 하와이 묘비 조사는 박민원 총장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하와이 묘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창원대 박물관 김주용 학예실장은 이번 조사의 가장 빛나는 성과를 '우리 지역 딸들의 발견'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가장 빛나는 성과는 이웃 마을에서 나고 자란 '창원의 딸들'이 태평양 건너 독립운동 동지로 함께한 위대한 여정을 밝혀낸 것입니다.”

주인공은 창원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 김공도(마산 외서 상남. 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박금우(마산 외서 성산. 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지사다. 두 지사는

**국립창원대 박물관,  
기억을 역사로 남기다**

지금까지 국립창원대 박물관이 수집한 하와이 이민 1세대의 묘비는 1,600기 이상. 그중 300기 이상이 선박 명부와 일치하고, 150명은 독립자금 기부자로 확인되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하와이 이민자들의 독립운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추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용 학예실장은 “묘비에 남겨진 이름 하나가 잊힌 역사를 되살리고 있다”며 “이는 단지 개인의 복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민원 총장은 “타지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학문적 책무”라며 “한 점의 자료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국립창원대학교 박물관의 조사는 단순한 과거 복원이 아니다. 오랫동안 잊힌 하와이 이민 1세대들의 이름을 세상에 다시 불러내기 시작했다.

묘비에 새겨진 그들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고, 국립창원대학교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고 있다.

100여 년 전, 저 멀리 하와이 이국땅에서 그 누구보다 조국의 독립을 바랐던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 400년 동안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살던 마을이 있었다.  
서로 웃고 도우며 함께 공동체로 살아온 시간들...

하지만 그들은 논과 밭, 집과 골목을 뒤로한 채 떠났다.  
아이들이 더 큰 세상에서 배우길 바라며,  
국립창원대학교가 그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리라 믿으며,

그들이 떠난 자리에  
사림 공원이 들어선다.  
단순한 쉼터가 아니다.  
400년 동안 지켜온 마을의 시간과  
사람들의 현신이 피어낸 공간이다.

400년 된 마을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립창원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 있다.

통합 국립창원대학교,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다.



**국립창원대학교**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국립창원대학교 전경

### 1. 통합의 시대,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 등장

2026년 3월, 국립창원대학교는 경남도립거창대학교와 남해대학교를 통합하여 전국 최초로 전문학사(2년제)와 일반학사(4년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출범한다. 이번 통합은 입학 정원의 감축 없이 진행되었으며,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선도적인 시도이다. 창원, 거창, 남해 그리고 2025년 개교한 사천우주항공캠퍼스를 포함한 4개 캠퍼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총 9,000여 명의 학부생과 2,447명의 신입생 정원을 유지하는 대규모 국립대학 체제로 재편된다. 각 캠퍼스는 지역 산업과 밀착된 특성화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부터 고급 연구 인력까지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2.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

통합 국립창원대학교는 지역의 산업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전략을 통해 캠퍼스별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구축한다. 창원캠퍼스는 방위산업, 원자력, 스마트 제조 등 경남의 전략산업에 필요한 고급 연구 인재를 양성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거창캠퍼스는 간호학과와 보건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와 항노화 기술 인재 양성에 집중하며, 남해캠퍼스는 해양·항공·관광 산업에 특화된 항공운항, 정비, 호텔관광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천우주항공캠퍼스는 국내 항공우주산업과 연계한 첨단 인재 교육의 중심지로서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할 전망이다. 2년제 과정에서 4년제 및 대학원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부 편입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성장 경로가 확대되며, 이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3. 새로운 UI, 대학의 비전을 시각화하다

대학 통합과 함께 국립창원대학교는 새로운 UI(University Identity-대학 상징)를 선보였다. 이번 UI 리뉴얼은 'DNA+ 세계적 명문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디자인 검토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심벌마크 'SHIELD OF TRUST'는 신뢰와 보호, 미래 지향성의 상징으로 방패, 배, 로켓, 우주선 형상을 모티브로 삼았다. 이는 가야의 철기문화와 대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미래로의 비상을 표현한다. 이니셜 로고는 ChangWon National University의 축약어를 유려한 곡선으로 표현하며, 창원의 바다와 강에서 영감을 얻었다. 엠블럼은 WISDOM(지혜), EXPANSION(확장), SHIELD(신뢰), FOUNDATION(성장 기반)이라는 핵심 가치를 시각화하여 대학의 철학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웹,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브랜드 일관성과 접근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물이다.

### 4. 상생을 향한 여정, 지역과 함께 크는 대학

이번 통합은 단순한 대학 간 결합이 아니라, 지역과 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공동체적 모델이다. 거창과 남해 도립대학 교직원의 국가지 전환, 기존 캠퍼스 부지의 무상 사용, 도의 재정적 지원 등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다층 학위제는 고등교육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지역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며, 궁극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박민원 총장은 "경남 중심 대학을 넘어 동남권 상위 3개 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박완수 도지사는 "통합 대학이 우수 인재와 교원을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이제 경남의 미래를 견인하고 세계와 연결되는 도약의 발판 위에 서 있다.

#### 국립창원대학교 리뉴얼 UI



**CWNU**  
국립창원대학교

####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 통합 승인

교명	국립창원대학교
개교일	2026년 3월 1일
학사운영	일반학사·전문학사 동시 운영
입학정원	2447명 (창원 1763명, 거창 344명, 남해 340명)





## 400년 마을의 시간, 국립창원대학교로 흐르다

### 사립공원, 기억과 헌신 위에 피어난 교육의 터전

캠퍼스를 걷다 보면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는 고요한 묘지 몇 기. 그러나 그곳은 단지 조상의 묘가 아니라, 국립창원대학교가 존재할 수 있게 한 '기억의 땅'이자 '헌신의 상징'이다. 국립창원대학교 박물관은 최근 캠퍼스 내 묘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이 부지가 단순한 교육기관의 터가 아니라 400여 년을 이어온 옛 마을의 역사와 후손들의 대승적 결단이 깃든 '기억의 장소'임을 확인했다.

### 기억의 땅, 상촌·퇴촌·용동마을

국립창원대가 세워지기 전, 이곳은 상촌, 퇴촌, 용동이라는 이름의 마을이었다. 김해 김씨, 경주 김씨, 여양 진씨, 동래 정씨, 창원 구씨 등 여러 성씨가 모여 살던 공동체. 임진왜란 이후부터 무려 400년 동안, 사람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농사를 지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비록 '유명한 역사'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굳건한 '생활의 역사'가 담긴 마을이었다.

### 교육을 위한 대승적 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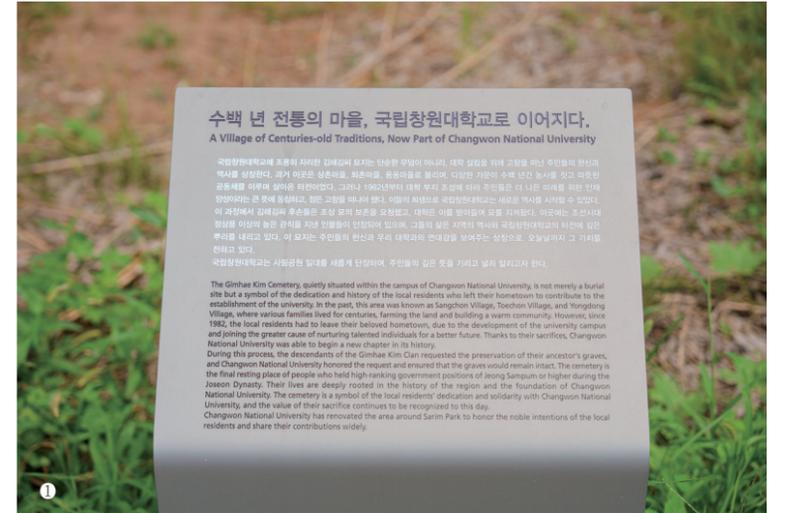
1982년, 국립창원대 캠퍼스 조성을 위한 부지 개발이 시작되며, 마을 주민들은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고향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주민들은 '인재 양성'이라는 더 큰 뜻에 공감하며 기꺼이 이주를 감내했다. 그들의 결단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위한 숭고한 헌신이었다.

### 조상 묘, 그 정신을 지키다

당시 김해 김씨 후손들은 조상 묘의 보존을 요청했고, 대학은 이를 수용했다. 현재 캠퍼스에는 통헌대부, 군자감정 등 조선시대 정삼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김해김씨 인물들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이 묘지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학문과 관직의 정신, 그리고 마을의 역사와 공동체의 의지를 지닌 '살아 있는 유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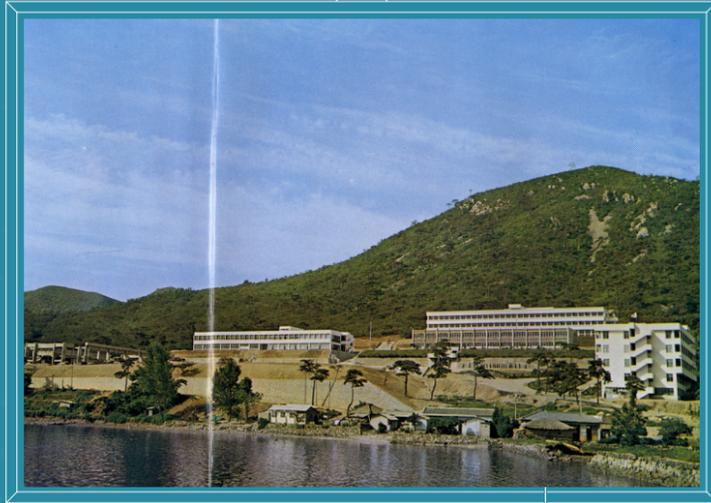
### 사립공원, 기억을 품은 새로운 공간

국립창원대는 이 숭고한 역사와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캠퍼스 내 사립폭포 일대를 '사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지난 3월 개장된 이 공원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마을의 기억과 후손들의 헌신, 그리고 대학의 뿌리를 함께 되새기는 상징 공간으로 거듭났다.



“묘지는 과거를 기억하는 곳을 넘어,  
미래를 위한 결심이 깃든 교육의 터전입니다.”

국립창원대 박물관의 이 말은 오늘의 캠퍼스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을 일깨운다.  
400년 마을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그 정신은 국립창원대학교의 이름으로 오늘도 자라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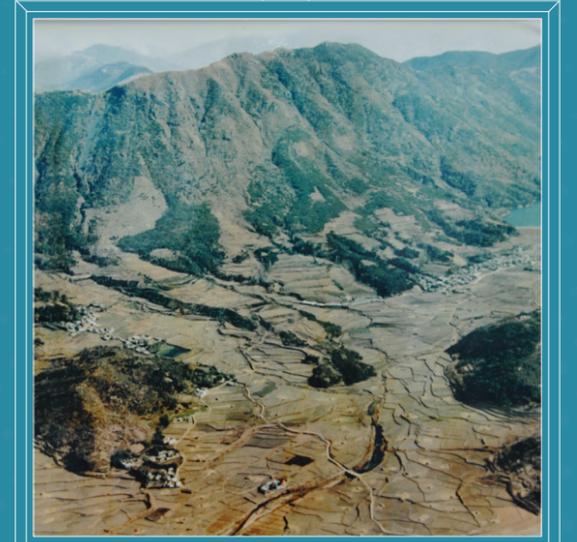
1



2



4



5



3



6

# 추억속의 그때 그-시점

- 국립창원대 여름 시즌 -

1 마산교육대학 가포캠퍼스전경(1974)

2 창원대학교 응원단 피닉스 공연무대(2006)

3 창원대학교 대동제 관람하는 학생(2000)

4 창원대학교 대동제 태권도 축하공연(2000)

5 용동마을 창원대학교 부지

6 마산교육대학 부설 초등학교원 연수원 수료기념사진(1975)

키 워 드 로      보 는      H O T      I S S U E

C W N U



## 4개 캠퍼스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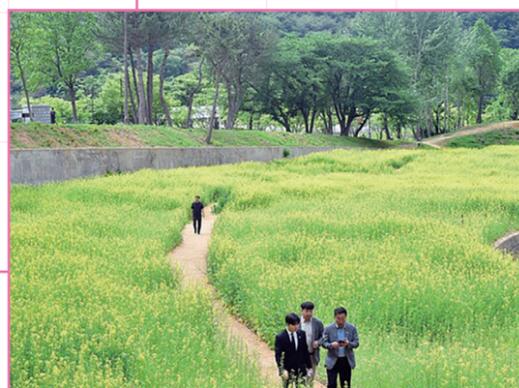
2026년 3월, 국립창원대·거창대·남해대·사천우주항공캠퍼스가 하나의 대학으로 출범한다. 전국 최초로 학사·전문학사를 함께 운영하며 국립대와 도립대 통합 모델을 실현한다. 지역·산업계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대학으로 거듭난다.

- ☑ 국립창원대학교
- ☑ 거창대학교
- ☑ 남해대학교
- ☑ 사천우주항공캠퍼스



## 나구스공원

26년간 방치됐던 용동근린공원이 '나구스공원'으로 새롭게 개장했다. 박민원 총장은 매일 아침 무단 경작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비를 이끌었다. 생활폐기물과 무단경작지였던 부지를 정비해 환경 개선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공원 이름 '나구스'는 "나를 구경하는 스탠드"라는 뜻을 담고 있다. 3월엔 창원특례시·의창구청과 공동 관리체계도 구축했다.



## RISE사업단

국립창원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RISE는 정부 재정 지원사업을 지자체 주도사업으로 전환한 새로운 모델이다. 2024년 LG-국립창원대 R&D센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4월 정식 출범했다. 현재 조영태 단장을 중심으로 32명의 운영인력이 사업을 이끌고 있다.



## 11명의 묘소

국립창원대학교는 6년간의 학술 연구와 현지 조사를 통해 하와이 독립유공자 11인의 묘소를 새롭게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9년 진행된 한인 이민자 묘소 조사로 현재까지 총 1,600기를 확인했으며, 2025년 한 해에만 11기의 독립유공자 묘소를 발굴했다. 이번 성과는 국립창원대 박물관과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역사 복원 작업의 결정체다.



## 금은동

국립창원대학교 양궁부가 2025년 대회 최고 성적을 거뒀다. 국립창원대 양궁부는 '제28회 한국대학연맹 회장기 양궁대회'에 참가해 리커브 여자 대학부 개인 거리에서 윤혜림(체육학과 2) 선수가 50m 2위, 30m 3위를, 올림픽 라운드 여대 단체전에서 2위에 올랐다. 컴파운드 경기에 출전한 정은솔(체육학과 4) 선수는 개인전 2위, 70m 3위, 60m 2위, 50m 1위, 30m 3위를 차지하며 본인의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 신임 교원 아카데미

국립창원대학교가 '2025 신임 교원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학생을 만나는 첫 시간'을 개최했다. 신임 교원 14명과 학생자치기구 대표 10명이 함께 모여 상호 이해와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교원이 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육 파트너로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학생 대표들은 단과대별 학습 문화와 학생 성향을 소개하며, 교수자의 공감과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ew Faculty Academy



# 2025 상반기, 국립창원대에 무슨 일이?!

지금 꼭 알아야 할 국립창원대 소식을 정리했어요.

# NEWS



**국립창원대학교, 새로운 UI(University Identity)를 소개합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심벌마크, 이니셜 로고, 엠블럼, 시그니처 조합 등을 포함한 새로운 UI(University Identity)를 확정했다. 이번 UI는 2025년 개교한 사천우주항공캠퍼스, 2026년 출범할 거창·남해대학교와의 통합을 반영해 4개 캠퍼스 시대에 맞춰 제작됐다. 'Coexistence, Innovation, Unlimited, Focus, Neo-Tech, Trust' 등 6개 핵심 단어를 도식화해 브랜드 비전을 구현했으며, 학문적 고유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 다양한 매체 환경에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심벌마크는 방패·배·로켓·우주선 형상으로 'SHIELD OF TRUST'를 표현하고, 이니셜 로고는 창원의 바다와 강을 형상화한 곡선과 안정적인 구조로 구성됐다. 엠블럼은 WISDOM, EXPANSION, SHIELD, FOUNDATION 요소를 결합해 일관된 대학 이미지를 전달한다. 국립창원대는 'DNA+ 세계적 명문대학교'를 지향하는 4개 캠퍼스 체제를 알리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대학-지역 상생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통합... 2026년 3월 '국립창원대학교'로 출범!**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이 교육부 통합 승인을 받아 2026년 3월 '국립창원대학교'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 쇠퇴 등 비수도권 위기 대응을 위한 '2024년 글로벌 대학 사업' 참여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3개 대학은 혁신 구조 마련과 지역 협력을 통해 글로벌 대학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통합 추진위원회 구성과 설명회·공청회 등을 거쳐 2023년 12월 말 통합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타당성과 특성화 계획을 7차례 심의해 올해 6월 29일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통합 사례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혁신 모델을 지향한다. 통합 대학은 7개 단과대학, 18개 학부, 55개 학과, 7개 대학원을 운영하며, 2026학년도 입학정원은 2,447명이다. 창원은 방산·원전·스마트제조·나노바이오·수소 중심 DNA+ 인재 양성, 거창은 미래방산·공공간호·휴먼케어·드론 융합 DA+ 인재 양성, 남해는 항공·해양 방산과 관광융합 중심 DN+ 특성화를 추진한다.



**국립창원대 '나구스공원' 조성, 대학-지역사회의 상생 발판 마련하다!**

국립창원대학교는 장기간 방치됐던 용동근린공원 부지를 정비하고, 지난 6월 22일 '나구스공원(나를 구경하는 스탠드)' 개장식을 개최했다. 해당 부지는 약 26년간 무단 경작과 생활폐기물 투기로 훼손됐으나, 박민원 총장이 2024년 2월 취임 이후 매일 아침 현장을 찾아 무단 경작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설득을 이어온 결과, 환경 정비를 마무리하고 3월에는 창원특례시 및 의창구청과 전 구역 공동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대학 정문 밖 본부 방향 왼편 부지에 유채꽃밭을 조성했고,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유채꽃밭 방영 이후 SNS로 알려지며 촬영지로 주목받았다. 현재는 코스모스, 백일홍 등 가을꽃이 파종되어 8월 중순 개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나구스공원'은 꽃밭을 조망할 수 있도록 스탠드와 보행로, 벤치 등을 설치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개장식과 함께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교직원, 이수오·최해범 전 총장, 동문, 사람동상가 주민협의회, 상가번영회, 지역 시민 등이 참석했다.



**학생 행복·성공 지원, 국립창원대 'COSS' 현판식 및 상담센터 개소!**

국립창원대학교는 지난 6월 11일, 학생 행복과 성공 지원을 위한 '제2학생회관(COSS)' 현판식 및 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학생 상담과 지원 기능을 한 공간에 집적화해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기존 5개 건물에 분산돼 있던 심리, 학습, 취업, 인권, 장애, 병무 관련 상담 기능이 제2학생회관으로 통합되었다. 해당 공간은 상담 전용이자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학생 이야기 듣기 백화점'을 의미하는 COSS(Consultation One Stop Store)라는 명칭이 붙었다. 국립창원대는 박민원 총장의 방향 제시에 따라 상담 기능 집적화를 본격 추진했고, 2025년 2월 리모델링을 마쳤다. 이후 취업전략센터,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등이 이전하고 환경 정비와 현판 작업도 완료됐다. 박민원 총장은 "대학은 학생 성공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COSS가 학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 기능 고도화를 통해 COSS가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립창원대학교, 새로운 도약!

# NEWS



## 국립창원대학교, 'BAC(Business & Art Center)' 개관식 개최!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7월 14일, 제2대학본부 'BAC(Business & Art Center)' 개관식을 개최했다. BAC는 예술적 감각과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벽 없는 사무실로 구성됐으며, 다목적 공용공간 확장을 통해 공간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리모델링이 추진됐다. 이 공간은 대학 구성원들이 도전과 혁신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됐다. 산학협력단, 연구처, 국제처, 대학원, 정보전산원, 박물관 등 주요 부서가 BAC로 이전하며 제2대학본부 기능이 강화되었다. 개관식에는 박민원 총장과 박종규 연구산학부총장, 교직원과 학생, 정영식 발전후원 회장(범한그룹 회장), 김재홍 총동창회장 등 내·외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축사, 경과보고, 제막식, 공간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박민원 총장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예술적 감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역량과 감각으로 대학 발전을 도모하자"며, "공간 조성에 도움을 준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 국립창원대학교, 글로벌-로컬 연계 플랫폼 '글로벌협력사무소' 개소

국립창원대학교 국제처는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화 플랫폼 '글로벌협력사무소(Office of Global Affairs)'를 7월 4일 공식 개소하고 헌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창원대가 국제 사회와 지역사회 간 지속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헌판식에는 박민원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및 교직원, 네덜란드 방산진흥위원회 Raymond W. Knops 회장, 네덜란드 방산 기업 대표단, 경남 방산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막식과 함께 글로벌협력사무소의 비전과 운영 방안이 소개됐으며, 다양한 교류 행사를 통해 국립창원대의 국제화 전략이 본격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글로벌협력사무소는 해외 대학 및 기관 방한 시 국내 기업과 지역 기관과의 실질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학술 교류, 산학 협력, 공동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국제 협력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국립창원대학교, '경남형 UGRIC 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국립창원대학교는 7월 1일 대학본부에서 '경남형 UGRIC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대학·지자체·연구소·산업체·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혁신 거버넌스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원 총장을 비롯해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지역 대학 총장,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UGRIC 모델 특강, 위촉장 수여, 향후 활동 계획 논의 등이 진행됐다. 추진위원회는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소멸 대응을 목표로, 17개 지역 대표 기관이 참여해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역 현안 발굴, 정책 제안, 산학연 협력 모델 창출 등 단계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각 기관 실무자와 부서 책임자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격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민원 총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실천적 대학의 출발점이 UGRIC"이라며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UGRIC은 교육부 글로벌 대학 30 사업에 대응하는 국립창원대의 지역 상생 체제로, 다섯 주체가 동일한 목표와 속도로 협력하는 시스템이다.



## 국립창원대학교, 새로운 도약... '고기 계양식' 개최!

국립창원대학교는 7월 7일 대학본부 4층 하늘정원에서 새롭게 제작한 고기를 공식 선포하는 '고기 계양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통합에 따른 UI 개편 이후 구성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민원 총장이 학생군사교육단 학생에게 새 고기를 전달하고, 이어 계양식이 진행됐다.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과 대학 구성원이 함께한 가운데, 국립창원대 학생군사교육단의 의식과 음악과 학생들의 금관오중주 연주, 교가 제창 등이 어우러지며 상징성과 감동을 더했다. 박민원 총장은 "변화된 대학의 상징 아래 하나 된 마음으로 학교를 사랑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A world map with a dark blue background and a grid of small white dots. Several bright white arcs of light curve across the map, originating from the East Asian region and extending towards the Americas and Europe.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shades of blue and white.

# 세계를 향한 경남의 중심 통합국립 창원대학교

국립 창원대학교 창원캠퍼스,  
국립 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국립 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국립 창원대학교 사천우주항공캠퍼스,  
4개 캠퍼스 시대의 개막!

2026년 3월,  
하나의 비전을 품은  
통합 국립 창원대학교가 옵니다.

The logo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Chonnam, featuring a stylized 'W' shape within a shield-like border.

**국립 창원대학교**